

4 층위론

The 4-Layer Theory of Human Disposition

기질의 두 갈래, 위계 감각의 수렴, 그리고 정치라는 출력

이동제 (Lee Dongje) · 이론 브리프 v2.4 · 2026 년 6 월 · 내부 작업 문서

이 이론이 답하는 질문은 “왜 정치성향이 다른가”가 아니다. “왜 우리는 사소한 반응부터 세계관, 정치성향까지 모든 층위에서 서로 다른가”이다. 정치란 그 흐름의 마지막 출력값일 뿐이다.

v2.4는 v2.3의 골격을 그대로 두고 네 가지를 정밀 증축한다. 첫째, ‘결론을 먼저 느끼고 이유는 나중에 만든다’는 명제에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이라는 학술적 근거를 낸다. 둘째, 층간 점선의 관성을 유조선 비유로 분명히 한다. 셋째, 도파민의 두 면을 교차해 사분면으로 정밀화한다. 넷째, 정치 성향이 짝 선택에까지 작동한다는 동류혼 증거로 ‘정치는 깊은 층의 신호’를 방증한다. 더해 점화 효과를 재현 위기 주의와 함께 방향성 시사로만 받는다.

I. 핵심 명제

인간은 백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정해진 기계도 아니다. 인간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 태어나고, 환경은 그 기울기를 증폭하거나, 비틀거나, 지연시킨다. 그러나 기울기 자체를 0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그래서 의견 차이는 정보량·지능·도덕성의 차이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구조의 차이이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상대를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설계된 사람’으로 보게 된다.

인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 출발한다. 이 기울기는 운명이 아니라 확률적 기본값이다. 기질은 세계관과 의견을 강하게 기울이지만, 문화·경험·시대·제도·선택이 그 경로를 언제나 비튼다.

II. 네 개의 층

사람의 사고는 단층이 아니다. 표면에는 말로 설명되는 의견이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오래되고 단단한 층이 있다. 위층은 아래층이 낳은 결과이며, 표면의 말은 종종 아래층에서 먼저 올라온 반응을 뒤늦게 설명한 것, 즉 사후합리화다.

심리학은 이를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이라 부른다. 이성엔 진실을 중립적으로 탐지하는 장치라기보다, 이미 기울어진 결론을 정당화할 근거를 만들어내는 변론가에 가깝다(하이트의 ‘이성은 변호사’ 비유). 즉 4 층의 말은 대개 아래층 반응의 사후 변론이다 — 의견이 먼저가 아니라 느낌이 먼저다.

층	내용	성격
4 층	표면 의견 — 정치·종교·정책·정체성. 아래 모든 층의 출력값.	가장 가변적
3b	가치 공리 —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선인가 + 적용 범위. (위계 감각이 여기 위치)	선택 개입 · 느슨한 연결
3a	세계 모델 —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위험/안전, 경쟁/상호의존. 3a가 3b를 선행.	강한 연결
2 층	무의식 반응 — 생각 전 자동 반응.	매우 안정. 훈련으로 약간 재배선 가능.
1 층	뿌리(기질) — 타고난 생리적 반응성. 새로움/안전 중 어디로 기울는가.	가장 단단함

층간 연결은 점선이다. 1 층 → 2 층 → 3a → 3b → 4 층으로 흐르되, 각 화살표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다. 아래층은 위층을 결정하지 않고 기울인다. 강한 경험·교육·제도·선택이 어느 지점에서든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점선의 굵기는 다르다 — 1·2 층 → 3a 는 강한 연결(거의 자동), 1·2 층 → 3b 는 느슨한 연결(선택 개입). 그래서 미스매치는 주로 느슨한 3b·4 층에서 생긴다.

변화에는 **관성**이 있다. 거대한 유조선은 키를 꺾어도 한참을 더 직진하다 비로소 휘듯, 아래층이 바뀌어도 그 변화가 위층의 의견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과 저항이 걸린다. 그래서 깊은 변화는 가능하되 느리고, 표면의 잦은 말바꿈과는 다른 시간 척도를 갖는다.

III. 두 방향: 프론티어와 가디언

프론티어와 가디언은 1·2 층 기질의 방향이다. 가치도 정당도 선택도 아니다. 이분법이 아니라 스펙트럼이며, 누구나 그 위 어딘가에 있다. 프론티어는 새로움·가능성·리스크·확장으로, 가디언은 안전·보호·예측 가능성·연속성으로 기운다.

객관성 특권 보장. 프론티어를 ‘사실 수용’, 가디언을 ‘규범 부과’ 라고만 두면 프론티어에게 객관성 특권이 생긴다. 더 정확히는, 프론티어는 현실의 제약·위계·경쟁을 더 쉽게 정당화·활용하고, 가디언은 현실의 고통·불평등·피해를 더 쉽게 교정 대상으로 본다. 둘 다 가치 입장이다. 어느 쪽도 중립이나 디폴트가 아니다.

가디언 ≠ 수동적·소심. 가디언은 겁 많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안중근의 저격, 격렬한 사회운동처럼 극한의 리스크와 카리스마도 보일 수 있다. 차이는 힘의 세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 그 추진력이 확장·시스템 건설이 아니라 보호를 향할 뿐이다. 프론티어는 같은 추진력을 판을 넓히는 데 쓰고, 가디언은 지키는 데 쓴다.

III-1. 기질은 여러 차원의 “합성 방향” 이다

프론티어/가디언은 단일 측정치가 아니다. 접근 시스템(BAS)과 회피 시스템(BIS), 부정 편향, 혐오 민감, 새로움 추구, 그리고 세로토닌·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 차원이 정렬되어 만드는 합성 방향이다. BIS/BAS 는 그중 측정 가능한 대표 렌즈의 하나일 뿐, 기질의 전부가 아니다(대표 렌즈인지조차 확정은 아니다).

비율이 방향을, 절대값이 강도를 정한다. BAS 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면 프론티어, BIS 가 우세하면 가디언으로 기운다(MBTI 의 T/F 처럼 비율로 본다). 둘의 절대값은 그 기질의 강도·색깔을 정한다. ‘위험을 알면서도 간다’ 는 것은 위협을 못 느낀 게 아니라(BIS 작동), 보상·확장이 더 강하게 끌어당긴(BAS 우세) 것이다. 이 비율 원리는 BIS/BAS 만이 아니라 세로토닌/도파민 등 모든 기질 차원에 똑같이 적용된다.

III-2. 도파민의 두 면: 새로움 탐색과 경쟁·성취

도파민은 하나의 기능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정반대로 갈 수 있는 두 면이 있다.

- **새로움 탐색(novelty seeking):** 낯선 것·새 경험·새 사상에 끌림. → 외집단·새 가치에 개방 → 위계 거부 쪽으로 기울 수 있음(진보 예술가형).
- **경쟁·성취·확장(reward/drive):** 이기고·강해지고·서열을 오르려는 동력. → 경쟁·위계에 몰두 → 위계 수긍 쪽으로 기울 수 있음(UFC 선수·보디빌더·기업가형).

이것이 ‘개방성 두 종류’ (V 장)의 생물학적 버전이다. UFC 선수·보디빌더가 경쟁적·위계 뚜렷·우파인 것은, 도파민의 경쟁·성취 면(reward)이 우세하고 위계를 수긍하기 때문이다. 같은 ‘프론티어’ 안에서 새로움(1) 우세인 사람과 경쟁(2) 우세인 사람은 정치적으로 갈린다 — 진보 예술가는 (1) 높고 (2) 낮으며, UFC 선수는 (2) 높고 (1) 낮고, 머스크는 둘 다 높다.

두 면을 교차하면 사분면이 나온다. 새로움(고/저) × 경쟁(고/저)으로 보면 — 새로움高·경쟁低 = 진보 예술가형(위계 거부 쪽), 새로움低·경쟁高 = UFC·보디빌더형(위계 수긍 쪽), 둘 다 高 = 머스크형(확장과 경쟁을 동시에), 둘 다 低 = 추진이 약한 안정 지향(전형적 가디언 쪽). 단 이 사분면은 도파민 한 축의 정밀화일 뿐, 위계 감각(3b)을 통과해야 비로소 정치 진영이 정해진다 — 해상도 원칙(IV)대로, 예측을 바꾸는 한에서만 쪼갬다.

IV. 가치 공리와 방법론 원칙

4 층위론은 왜 사람이 그런 선호를 갖는지 설명하는 틀이지, 특정 선호를 우주적 진실로 선언하는 장치가 아니다. 분석가 개인의 가치 선호(예: ‘프론티어가 옳다’)는 어떤 이론 문서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론은 중립 분류 틀이지 옹호문이 아니다(딸기 vs 수박).

자연관에서도 대칭성을 유지한다. ‘자연은 이러하다(사실 수용)’도, ‘자연은 이래야 한다(규범 부과)’도 모두 3 층 가치 공리다. ‘개입 여부’도 판별 기준이 아니다. 가르는 것은 ‘개입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호하려 개입하느냐’다.

해상도 원칙 — 왜 2×2 로 단순화하는가. 현실은 무한히 많은 기질 차원의 조합(2^n)이다. 그러나 이론의 의의는 그것을 1:1 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의미 있게 바꾸는 변수만 골라 단순화하는 데 있다(손실 압축). 한 차원을 더 쪼개는 것은 안 쪼개면 자주 틀리는 반례가 있을 때만 정당화된다 — 도파민을 새로움/경쟁으로 쪼개면 UFC·진보 예술가 반례가 정당화된다. 대중 모델은 프론티어/가디언 한 축으로, 정밀 분석은 필요한 만큼 쪼개다.

V. 왜 정치는 기질에 깔끔히 매핑되지 않는가

프론티어/가디언은 정치 진영이 아니다. 좌우 진영은 기질이 문화·시대·제도·언어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3 층 위계 감각을 통과한 뒤 나타나는 4 층 출력값이다. 따라서 ‘프론티어=우파’ 같은 직결은 이론의 힘을 오히려 약하게 만든다.

개방성도 리스크도 두 종류다. 자극 개방성(새로움·기술·탐험)과 사회적 개방성(외집단·이민 포용)은 자동으로 함께 가지 않는다. 리스크도 방어적 위협 민감성과 공격적 보상 추구로 갈린다. 그래서 보수적 인물이 위협엔 민감하면서도 사업·전쟁·기술에서는 극단적 리스크 테이커일 수 있다(머스크).

V-1. 최정균의 “정반대 매칭”은 반대가 아니라 다른 면이다

최정균은 도파민을 진보에, 세로토닌을 보수에 매칭한다. 표면상 이는 ‘프론티어(≈도파민)=보수’라는 본 이론과 정반대로 보인다. 그러나 충돌이 아니다 — 두 사람은 도파민의 다른 면을 보고 있다.

- 최정균: 도파민의 새로움 탐색 면 → 낯선 것 개방 → 진보. (이 면은 맞다.)
- 본 이론: 도파민의 경쟁·성취 면 → 위계 수궁 → 보수. (이 면도 맞다.)

UFC 선수·보디빌더가 결정적 증거다. 이들은 도파민형(추진·경쟁)인데 우파다. 최정균 공식(‘도파민=진보’)대로면 진보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 도파민을 새로움/경쟁으로 쪼개면, 이들은 ‘경쟁 도파민+위계 수궁 → 보수’로 정확히 설명된다. 즉 본 이론은 최정균을 틀렸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을 쪼개지 않은 단순화’로 흡수한다.

V-2. 환경이 고정되면 기질로 꽤 맞고, 환경이 다르면 흔들린다

성격·기질만 봐도 정치성향이 자주 가늠되는 것은 사실이다. 단 그것은 기질 → 정치 직결이라서가 아니라, 비슷한 환경(같은 지역·세대) 안에서는 환경 변수가 고정되어 기질 차이만 남기 때문이다. 환경이 크게 다르면 기질로 맞추기 어렵다 — 대구와 전남의 정치 선호 차이, 강남의 우파 지지도가 그 증거다. 같은 기질도 지역·역사·경제 위치에 따라 다른 진영으로 출력된다.

표면 의견(4 층) = 기질(1·2 층) × 세계 모델 × 가치 공리 × 위계 감각 × 내집단 경계 × 문화 환경

VI. 위계 감각: 3b의 중심 변수

위계 감각은 3b(가치 공리)에 위치한다. 핵심은 ‘집단·개인 간의 차등(서열·격차)을 마땅한 질서로 수궁하는가’이다. 여기서 인식과 수궁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차등을 인식하는 것(‘능력 차이가 결과 차이를 낳는다’)은 3a 사실 인식이며 거의 누구나 한다 — 판별력이 없다. 그 차등을 마땅하다고 수궁하느냐(3b)가 진보/보수를 가르는 판별 지점이다.

용어는 양극을 둘 다 날카롭게 병기한다. 위계 감각이 강함 = ‘노력·능력만큼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차등 정당)’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못 따라온 자의 도태도 자연스럽다.’ 이 둘은 한 입장의 두 얼굴이다. 한 면만 쓰면 편향이고 (‘도태 허용’은 가디언 프레임, ‘능력 보상’은 프론티어 프레임), 양면을 다 박아야 중립이다 — 객관성 특권 보정의 짝이다.

3a(‘차등이 난다’)에서 3b(‘차등이 마땅하다’)로 가는 점선은 이 경우 유난히 굵어, 둘이 한 덩어리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온정적 보수(차등을 인식하되 도태는 막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가 그 둘이 분리 가능함을 보여준다.

VI-1. 위계 감각의 두 적용 방향

위계 감각(‘차등이 마땅하다’)은 적용 대상에 따라 두 갈래로 갈라진다 — 한 뿌리의 두 적용이다.

- **집단 간 적용 → 외집단 태도.** ‘우리 집단이 위, 남의 집단이 아래가 마땅.’ (강한 외집단에 위계적으로 승복·편입하는 것 — 친일파 — 도 위계 감각의 발현이다.)
- **집단 내 적용 → 보호의 단위.** ‘능력 있는 개인이 위, 약자가 아래가 마땅’ → 추상적 전체를 위해 약자 도태를 감수.

위계 감각과 보호의 단위는 강한 상관·별도 변수다(완전 종속 아님). 위계 감각이 보호의 단위를 강하게 기울이되 결정하지는 않는다(점선). 온정적 보수처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위계를 유지한 채 도태만 완화하는 온정적 보수와, 위계 자체를 없애는 위계 거부(지위 포기·재산 분배)는 다르다.

VI-2. 세금: 위계 감각의 강한 단서

세금은 ‘도태를 어디까지 막을 것인가 = 차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사회적 합의다. 세금을 많이 걷자는 입장은 도태를 덜 허용(위계 감각 약함), 적게 걷자는 입장은 도태를 더 허용(위계 감각 강함) 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세금은 위계 감각의 강한 단서다.

단 세금 입장은 위계 감각의 순수 측정이 아니다. 세금 적게 = ‘도태가 자연’ (위계)일 수도, ‘시장이 효율적’ (효율)일 수도, ‘내 확장을 막지 마라’ (자유)일 수도 있다. 세금 많이 = ‘약자가 불쌍’ (도태 거부)일 수도, ‘사회 안정·치안’ (질서 동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왜 그 입장인가’를 캐물어야 4층 정책에서 3층 동기를 가른다.

VII. 내집단 경계와 위협의 과녁

내집단 크기는 별도 변수다. 부족·국가처럼 좁으면 외집단은 구체적 타자가 되고, 인류처럼 넓으면 외집단은 외계·멸종 위험·시스템 붕괴 같은 더 추상적인 대상으로 이동한다.

내집단 크기는 위협의 과녁을 조준한다. 위협 민감도의 강도는 BIS가 만들 수 있지만, 그 민감함이 무엇을 향하느냐는 세계 모델과 내집단 경계가 정한다. 같은 高 BIS라도 과녁이 완전히 달라진다 — 부족이면 옆 부족을, 나라면 적국·이민을, 인류 전체(머스크 추정)면 소행성·AI·멸종을 경계한다.

이 원리는 해석 충돌을 설명한다. 같은 행동도 어떤 분석가는 좁은 내집단의 외집단 배척으로, 다른 분석가는 넓은 내집단의 내부 질서 유지로 읽는다. 바로 그 사실이 행동만으로 세계관을 확정할 수 없다는 핵심을 보여준다.

VII-1. 신뢰의 방향 (히빙)

히빙은 핵심 정치 분단을 리스크보다 신뢰 — ‘누구를 신뢰하는가’로 본다. 이는 내집단 경계 변수와 같은 자리다. 위계 감각이 ‘누가 위인가’라면, 신뢰의 방향은 ‘누구를 믿는가’이며, 둘 다 내집단 경계를 어떻게 굿느냐에서 나온다. 옥시토신 등 신경내분비 요인이 이 신뢰 회로와 관련된다는 가설이 있으나 — 외집단 효과는 논쟁적이고(반박 다수), 맥락·개인에 따라 정반대로 나타나며(‘옥시토신 역설’), 양육 경험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옥시토신은 확정 기제가 아니라 ‘신뢰의 방향에 생물학적 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방향성 시사로만 받는다.

VIII. 위협 민감성: 둘 다 두려워하되 다른 것을

보수만 위협에 민감하고 진보는 그렇지 않다는 단순화는 부족하다. 양쪽 모두 위협에 민감하되, 감지하는 위협의 종류가 다르다.

프론티어는 붕괴를 두려워하고, 가디언은 훼손을 두려워한다. 프론티어의 공포는 시스템이 약해지는 것 — 질서·규율·내집단·문명·미래의 붕괴. 가디언의 공포는 사람이 훼손되는 것 — 약자·관계·존엄·피해자의 고통이 짓밟힘. 위협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가는 BIS 와, 그 위협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는 세계 모델·내집단 경계와 관련된다.

그래서 ‘위협 민감한 프론티어’가 가능하다 —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위협을 느끼면서도 보상·사명·확장이 더 강한 사람. ‘무던한 가디언’도 가능하다 — 불안이 아니라 가치·관계 감각 때문에 보호를 우선하는 사람.

IX. 행동은 결론이 아니라 단서다: 희생의 방향

기질은 행동의 내용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가에서 드러난다. 단일 행동은 위장 가능한 약한 단서이고, 누적 궤적과 위기의 선택이 강한 단서다. 점은 속여도 선은 못 속인다.

단서에는 무게가 있다. 외부 해석(약함) < 단발 발언·연출 가능(중간) < 본인이 사심 없는 상황에서 정리한 동기(강함). 그리고 강한 단서는 선을 재추정할 만큼 무겁다.

혁명·저항을 했다는 사실이 곧 위계 거부를 뜻하지 않는다. 위계 자체를 줄이려는 것(위계 해체)과 기존 위계가 전도됐다고 보고 자기 기준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위계 재배치)은 다르다. 후자는 오히려 강한 위계 감각의 표현이다. 따라서 ‘기존 질서에 저항한다’는 행동만으로 위계 감각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X. 인물 분석: 추정하되 확신도를 단다

분류를 모두 회피하면(전부 미결) 이론이 무의미해지고, 모두 척척 단정하면 편향에 빠진다. 답은 추정하되 확신도를 정직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경계할 것은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50:50 을 90%인 척하는 과신’이다.

- 픽션과 실존의 확신도를 구분한다. 픽션은 작가가 내면을 보증하므로 높은 확신으로 분석 가능(이론의 깨끗한 실험대). 실존 인물은 외부 추정이라 확신도를 낮추고 편향을 경계한다.
- 평판에서 기질을 역산하지 않는다. ‘독립영웅=따뜻함=가디언’ 식 역산은 오판을 부른다 — 사료·본인 진술 같은 직접 단서로 가야 한다.

사례: 안중근 재평가. 기존의 ‘동기가 보호 → 가디언’ 추정은 평판 역산이었다. 「동양평화론」(한·청·일 연대, 동양평화회의·공동 화폐·공동 군대) 사료를 보면, 이는 눈앞의 개인 보호가 아니라 거대 질서의 창조·설계(프론티어)이며, 내집단이 조선 → 동양 → 세계로 확장되는 넓은 내집단 구조다. 재평가: 프론티어 쪽, 확신 중상. 단 진짜 동기는 외부 확정 불가 — 계속 열어둔다.

XI. 보수 안의 두 기질과 위계 수궁으로의 수렴

부정 편향(위협·부정 정보에 대한 민감성, 히빙)은 사회·문화 보수는 예측하나 경제 보수는 예측하지 못한다(Malka 등의 비판). 이는 ‘보수’가 단일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 보수 안에 두 기질이 있다.

	프론티어형 보수	가디언형 보수
기질(1·2 층)	도파민형 — 경쟁·성취·확장	세로토닌형 — 안정·질서·보호
위계 수궁 동기	위계를 세우고 지배하려고 수궁 (능력주의·효율)	위계 안에서 보호받으려고 수궁 (전통·권위)
예시	머스크·포드·박정희·트럼프·카네기·UFC 선수	전통주의자·종교 보수·전형적 수호자

수렴: 기질은 두 갈래, 세계관은 한 뿌리. 두 기질은 출발 엔진(도파민/세로토닌)이 정반대지만, 3 층 ‘위계 수궁’이라는 같은 세계관으로 수렴하여 4 층에서 한 보수 진영에 모인다. 박쥐와 새가 ‘뿌리는 달라도 날개로 수렴’하듯이. 최정균·히빙은 이 중 가디언형 보수(세로토닌·전통)를 보았고, 본 이론은 프론티어형 보수(도파민·시장)를 본다 — 둘 다 부분적으로 맞다. (이는 미국/한국 문화 차이가 아니라 보수 내부의 두 기질 문제다.)

단 수렴은 필연이 아니라 강한 경향이다. 같은 기질이어도 위계를 거부하는 경우(이재명·체 게바라 형의 위계 거부 이탈자)가 있다. 같은 도파민이 머스크에게선 위계 수궁(우파)으로, 이재명에게선 위계 거부(좌파)로 갈리는 것을 무엇이 가르는가 — 3 층 경험으로 추정되나 미검증, 열린 질문으로 둔다.

XII. 세 가지 상태 · 테스트 설계

순수형 — 뿌리와 표면이 같은 방향, 마찰이 적다. 통합형 — 두 결을 다 가졌으나 한 목적에 복무시켜 마찰이 없다. 미스매치 — 겉과 속이 어긋났는데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다. 미스매치는 위선이 아니라 1·2 층 반응을 4 층 말로 사후합리화하는 것이며, 출구는 자각이다. 세 상태는 위계가 아니라 갈림길이다.

테스트 설계 원칙. 지필 테스트는 2 층(무의식)에 직접 닿지 못한다. 잡히는 것은 4 층, 잘해야 3 층이다(2 층은 생리 측정 필요). 그런데 4 층(정책)으로 기질을 직접 추정하는 것은 이론이 금지한 행동 역추론이다. 탈출구 — 정책을 ‘입구’로 쓰되 ‘충돌 시 무엇을 먼저 포기하나 / 왜 그 입장인가’로 희생의 방향·동기(3 층)를 캐묻는다.

분류는 절대 점수 컷오프가 아니라 비율(5:5)로, 정도(%)를 함께 표시한다. 중앙값(인구 전체 기준) 대비 어느 쪽으로 기울는가로 가르되, 한쪽으로 ‘단정 찍기’ 않고 정도를 보여 경계 사례의 약점을 피한다. ‘소수 프론티어’는 분류 기준이 아니라 별개 관찰(극단 행동화의 희소성)이다.

XIII. 이론의 의의: 예측이 아니라 이해

이 이론의 의의는 기질로 정치를 직접 맞히는 예측이 아니다. ‘도파민 → 진보’처럼 기질을 정치에 직결시키는 모델은 깔끔해 보이지만 자주 틀린다(포드·머스크·박정희·UFC가 반례). 본 이론은 ‘기질 + 위계 감각’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보기에 오히려 더 정확하다 — 일기예보가 ‘여름 → 맑음’이 아니라 ‘여름 + 저기압 → 비’로 더 정확해지듯이. ‘기질만으로는 모른다’는 결함이 아니라 생물학적 결정론을 피한 정밀함이다.

정치는 깊은 층의 신호다. 사람들은 외모나 성격보다 정치 성향이 비슷한 상대와 짝을 이루는 경향이 있고(동류혼), 이 정치적 유사성은 부분적으로 유전되는 것으로 보고된다(Alford·Hatemi 등). 표면 의견이라면 이렇게까지 깊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정치가 짝 선택에까지 닿는다는 것은, 그것이 4 층의 가벼운 말이 아니라 1·2·3 층에서 올라온 깊은 신호임을 방증한다 — 본 이론의 ‘의견은 뿌리에서 온다’는 명제와 맞닿는다.

그리고 진짜 의의는 ‘이해’다. 같은 도파민이 왜 머스크는 우파, 이재명은 좌파로 가는가 — 직결 모델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예외’로 치우지만, 본 이론은 위계 감각(3 층)이 같았다고 설명한다. 차이가 깊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 상대를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설계된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 — 그래서 결론은 설득이 아니라 협상·구조 설계다.

기질 분석의 쓸모. 상대를 내 의견으로 끌어오는 설득법이 아니라, ‘설득이 통할 자리(같은 기질·같은 가치)와 협상으로 가야 할 자리(다른 기질)’를 구분하는 것이다. 뿌리가 다른 사람은 논리로 안 바뀌므로(2 층이 위협으로 처리) 그 경계를 알면 헛된 논쟁을 멈추고 공존 설계로 전환할 수 있다. 단 같은 기질이어도 3 층 가치가 다르면 설득이 어렵다.

XIV. 규범의 토대(LQQ)와 학술적 연결

4 층위론은 ‘왜 우리가 다른가’라는 사실(is)을 설명한다.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라는 규범(ought)은 LQQ로 이어진다. 거의 모든 생명은 존속이 비존속보다 낫다는 공리를 전제하나, 고통뿐인 존속은 선이라 부르기 어렵다. 따라서 존속의 양(量)뿐 아니라 질(質)이 함께 필요하다 — 이것이 LQQ(Life Quality × Quantity), 장기주의가 결합된 질적 공리주의다. 4 층위론이 차이의 사실을, LQQ가 합의 가능한 방향을 말한다.

학술적 토대

- **Hibbing·Smith·Alford, 『Predisposed』**. 정치 차이가 정보량이 아니라 생물·심리적 성향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인다. 베드록(Bedrock) 개념이 1·2·3 층과 맞닿는다. 단 본 이론은 정치를 곧바로 기질로 환원하지 않고 문화·위계 감각·내집단 경계를 거친 출력으로 본다.
- **부정 편향 논쟁(Hibbing 2014 / Malka·DeYoung 비판)**. 부정 편향이 사회 보수는 설명하나 경제 보수는 못 한다는 비판이, 본 이론의 ‘보수 안의 두 기질’ 과 맞닿는다.
-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 이성이 결론을 정당화하는 사후 변론이라는 연구(하이트 등)가 본 이론의 ‘의견은 사후합리화’ (II)를 떠받친다.
- **정치적 동류혼·유전(Alford·Hatemi 등)**. 배우자 간 정치 유사성이 외모·성격보다 강하고 부분적으로 유전된다는 보고가, 정치가 깊은 층의 신호라는 본 이론의 명제를 방증한다.
- **BIS/BAS·세로토닌/도파민**. 기질의 하부 차원으로 참고하되 상관이지 결정이 아니며(개인차가 크다), 신경과학 자료는 상관/인과·효과 크기·재현 위기를 유의하여 방향성 근거로만 쓴다.
- **Baron-Cohen 공감·체계화(E-S)**. 가디언/프론티어의 심리학적 선행 연구로 참고한다 — 위에 서 있되 환원하지 않는다.

부록. 열린 질문 (검증 전 · 데이터 필요)

- 세계관(3 층) ↔ 기질(1·2 층) 연결이 필연인가 경향인가 — 현재 경향(점선)으로 열어둠. 100%가 아니라고 약한 것이 아니다(강한 영향, 비결정).
- 같은 기질이 위계 수급/거부로 갈리는 것을 무엇이 가르는가(3 층 경험? 미검증).
- 성차와 기질: things-people 흥미 성차(큼)는 ‘보호의 단위’ 와 다른 축이다. 프론티어/가디언의 성차는 측정 미존재 — 공감·도덕 기반·위험 감수의 ‘효과 크기와 겹침(%)’을 보되, 확증이 아니라 검증으로. ‘남=프론티어 여=가디언’ 은 분포가 대체로 겹치고 문화 교란이 커 직결 불가.
- 기질-정치 신경과학(편도체·5-HTT·도파민): 상관 ≠ 인과, 재현 위기 유의. 정파적 출처 배제, 1 차 연구 우선.
- 1 층의 비교정성: 버빗원숭이 세로토닌은 지위의 결과(환경 → 생물학)일 수 있다. 생물학 지표조차 환경으로 변할 수 있어 ‘1 층도 100% 고정은 아님’ 과 합치. 단 ‘동물 서열 → 인간 정치’ 는 종을 건넌 도약 — 비유로만.
- 비율 모델(세로토닌/도파민 포함 모든 기질 차원을 비율로) 검증.
- 점화 효과·체화된 인지: 판단이 신체·환경 단서에 점화(priming)된다는 연구가 ‘이성은 사후’ 라는 그림과 맞닿으나, 점화 연구는 재현 위기가 크므로 확증이 아니라 방향성 시사로만 받는다.